

클로저 이상웅

By Choi Hoon < 692 >

추적추적 비 내리는 잠실야구장.

잔아- 잔아- 날씨도 매우 쌀쌀합니다만...

빈자리가 보이기 커녕 더블헤더 2차전부터 입장하신 관중 분들이 더해져 오히려 장내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승과 4강이 마지막 시합에서 정해지는군요. 정말 역대급 시즌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더블헤더 두번째 경기, 선발 라인업을 살펴봐 주시죠.

서훈석 1
강하균 2
남승우 3
박민준 4
진승남 5
이규철 6
권영기 7
정원상 8
이상민 9
한정규 P

반면 게이터스는 대폭적인 타순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팀내 중심타자들을 최대한 앞으로 모아 경기 초반 운영이 불안한 권영찬을 집중공략하겠다는 감독의 의도가 보이네요.

또한 하위타순에서는 안정적인 주전 야수 이용한, 박두기 대신에 장타가 있는 백업 권영기, 정원상을 올렸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날씨가 보아 수중전이 될 것이 분명하데 주전 야수를 내린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롭네요.

1 이원호
2 박세남
3 이정상
4 김기정
5 이상현
6 유진승
7 정인권
8 이범섭
9 문장훈
P 권기찬

램스는 정인권을 다시 7번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 정인권을 3번으로 올리며 변화를 꾀한 성성식 감독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변화가 부담스러웠던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정인권이 7번으로 가며,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었던 램스의 하위타선에 다시 힘이 실리는 느낌도 분명 있습니다.

잔아- 잔아- 잔아- 잔아- 잔아-

비...

이번 시즌 난 운이 따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5일(화요일) 음력: 1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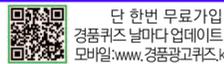
<p>쥐 행운색: 청색</p> <p>오늘의 마음: 여명, 햇빛 직전, 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에 얽매고 고개를 맞보기 쉬운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은 있는 날이다. 상속 받는 일, 복권당첨일이 될 수도 있다. 한 밤중에 길을 가는데 맥구름이 걷히며 밝은 달이 길을 안내하는 운이다. 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이득이 있는 날이다. 길방: 동</p>	<p>소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노력을 하여라. 이룬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는데 주변에서 좀 더 기다리라며 나를 잡는다. 답답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집감래다.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뒤따라야 이루어진다.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기운이 강하여져서 학문이나 자격증, 고시 등의 시험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길방: 서</p>
<p>호랑이 행운색: 검정</p> <p>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화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움직임을 펼치고 싶는데 날이 저문다. 이 뜨거운 정열을 어떤 방식으로든 식혀야 한다. 속에 간직된 사연이 많다. 평소 내내던 사람도 오늘은 차분해진다. 비참한 두뇌와 기이한 발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날이나 잘못 되면 엉뚱하게 주책을 탐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길방: 북</p>	<p>토끼 행운색: 적색</p> <p>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뻔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풀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오늘은 공연회 분주해지고 심란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다. 벌써 아닌 일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을 하여도 일이 없고 물건을 팔아도 가격이 도통 기억이 안난다. 길방: 남</p>
<p>용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미발탁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부부싸움을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자문관이 군왕에게 충정 어린 자문을 하고 있는데 왕비가 이를 꾀해서 자문관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날이다.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집수리, 이사, 잔치, 혼인도 피하라. 그러나 좋은 점은 내성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로 전환될 수도 있는 날이다. 길방: 서</p>	<p>뱀 행운색: 노랑</p> <p>오늘의 마음: 싸움, 소심한 날. 운세: 안이한 생활에 쫓겨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시기할전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은 원진과 귀부살의 날이다. 뱀이 시찰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뱀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개가 뱀을 주저앉힌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오늘은 닭피와 돼지피와 함께하라. 잡힌 발목이 풀려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길방: 중앙</p>
<p>말 행운색: 노랑</p> <p>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어떠한 위험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미혼자는 결혼 성사되며 취업 운이 좋은 날이다. 기초와 경륜이 탁월하여 화개에 연관된 부문 즉, 예술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말은 장군의 기상과 강한 추진력을 의미하고 오늘은 근신, 자숙, 겸양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결국 두 힘의 조화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길방: 중앙</p>	<p>양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롭고 싶다.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오늘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 관재수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어디에 있어도 편지 않다.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고 조상님을 원망하며 한숨 짓는 날이다. 이러한 날은 말피쟁과 일을 도모하면 해소된다. 길방: 서</p>
<p>원숭이 행운색: 검정</p> <p>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뭄되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이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합정이 도사리고 있다. 원숭이는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려 하는데 개가 정면에서 저지하며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정신이 혼미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괜히 야단을치고 끝으로 후회한다. 승진이나 시험합격이 어려운 날이다. 길방: 북</p>	<p>닭 행운색: 검정</p> <p>오늘의 마음: 먹구름, 기시발길, 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 있다.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전경터에 있어야 할 장군이 내근직에 앉았으니 답답하다. 그러나 이른 국방부 장관이 되는 운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오늘은 금의날이요,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보는 날이다.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운세이다. 길방: 북</p>
<p>개 행운색: 흰색</p> <p>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 두려움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은 화개가 화개를 만난 날이다. 화개란 자신을 가지고 뚫고 튀지 않게 하려는 면이 강한 기운을 말한다. 오늘은 자신을 스스로 옥쇄는 현상을 보인다. 고독을 즐기며 자기도취에 빠져 비현실적인 상태가 되는 날이다. 호랑이피와 말피를 만나라. 길방: 서</p>	<p>돼지 행운색: 청색</p> <p>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잔잔한 바다위에 돛을 높이 올리고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형상이다. 개발되기를 기다리던 대지위에 이제 막 첫 삽을 쫓았다. 방해물은 하나도 없고 희망과 정열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는 기운이다. 함께하는 동료들도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단결하여 첫 사업을 시작하는 운기이다. 길방: 동</p>
<p>재운코너</p> <p>금일의 로또 구입처 행운방향(주거지 기준): 동, 북, 동북, 서북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4, 6)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p>	

* '클로저 이상웅'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원역리학회 도원학당 원장 *영어상담 가능(02-812-1201~2)

강주현의 퍼즐월드

(큐미디어 게임) play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날말·난수표·숨은그림찾기·스타와사다리타기·야구도쿠·오늘의운세(솔광)·그림영어퍼즐(영우세)을 쳐보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 받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www.매직도쿠.kr 02-493-5956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주세요

1	라	2		3		4	
14		15		16		17	
13							
12			마			18	
11							
							다

- 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한.
03. 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기.
 04.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 란 뜻. '오우오'
 05.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06. 애티가 나는 사람이나 물건.
 07. 한꺼번에 겹치거나 거듭되는 고통.
 08. 발전의 속도나 규모 따위가 높은 정도로 빨리 이루어짐.
 09.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ㅇ이ㅇ사'
 10.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활이나 총을 쓰는 연습을 하는 곳. 'ㅇ적ㅇ'
 11. 주로 수공업자가 시장에 내다가 팔려고 만든 물건.
 12. 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
 13.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14.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15.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16.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17. 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8.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9.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20. 곁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21. 이불과 요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퍼즐정답

단어이여가: 왼쪽 낱말을 모두 쓴 다음 가. 나. 다. 라. 마 간의 글자를 이어 놓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3	5	9	10	14	16	17
10	13	15	18	19	20	21
11	12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13	14	15	16	17	18	19
14	15	16	17	18	19	20
15	16	17	18	19	20	21

- 열쇠**
01. 경기나 경쟁 등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몇 지게 이루어지는 일.
 02.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

유머

겨울 풍경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5분만 기다리세요"
남자가 반색하며 되물었다.
"5분이면 밥이 다 된단 말이지?"
그러자 아내가 배시시 웃으며 하는 말.
"아뇨, 5분이면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가서 먹어요."

이혼사유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법원에 갔다. 판사가 부인에게 물었다.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지?"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그래요? 결혼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3일 됐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즉시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승인합니다! 결혼한지 3일이면 지금 코를 골 틈이 없어야 하는데!"

5분만 기다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아내의 밥 짓는 모습이 너무 이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는 시켜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날 퇴근 후 배는 고프는데 식사준비가 안 돼 있다 화가 난 남자가 버럭 소리쳤다.
"오늘 저녁밥 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 호텔 가서 사먹을 테니 알아서 해!"